

제 28 장

여성주의이론

학습목표

1. 여성주의이론의 사회관과 기본 가정을 이해한다.
2. 여성주의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해한다.
3. 여성주의이론의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
4. 여성주의이론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한다.

Mary Wollstonecraft
(1759-1797)



여성주의이론(feminist theory)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의미한다. 즉, 여성주의이론은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에 관심을 갖고 성적 불평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냄과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사회, 경제, 법률, 문화적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의 삶과 경험을 중시하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신장을 주장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말한다.

여성주의이론은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신분석, 가정경제학, 문학, 교육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제시되었으며, 차별, 성적 대상화, 억압, 계급,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편견 등의 성적 불평등과 관련된 주제에 공통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주의이론은 Mary Wollstonecraft이 1792년 ‘여성의 권리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를 출간하고 연이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책들이 출간되면서, 여성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지금까지 4세대에 걸친 여성주의 이념과 운동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en.wikipedia.org).

1세대 여성주의 이념과 운동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여성의 정치적 권리(참정권)와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적 여성주의 운동이다. 2세대 여성주의 이념과 운동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개된 것으로, 여성의 법적 및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와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운동이었다. 3세대 여성주의 이념과 운동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전개된 것으로 제3세계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국가 여성들이 비서구적 여성주의 담론을 형성하여 여성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4세대 여성주의 이념과 운동은 2010년대 초반부터 전개된 것으로 소위 ‘미투(Me Too)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적 학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Jessie Bernard
(1903-1996)



이와 같은 발달과정을 거친 여성주의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은 어떠한가?”와 “왜 여성의 상황이 이러한가?”라는 두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여성주

의이론은 ① 사회적 성(gender)의 차이, ② 사회적 성의 불평등, ③ 사회적 성 억압 그리고 ④ 구조적 억압을 다루는 이론들로 나뉜다(Ritzer, 2016). 사회적 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들로는 문화여성주의, 생물학적 관점 등이 있으며, 사회적 성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이론이 있다. 사회적 성 억압을 다루는 이론으로는 정신분석적 여성주의이론, 급진적 여성주의이론이 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을 다루는 이론으로는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이론, 교차성이론 등이 있다.

1. 사회관과 기본 가정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여성주의이론은 여성 중심적 관점에서 인간의 경험과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일련의 사고체계이므로, 이론마다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상이하다(Ritzer, 2016; 공미혜 외, 2010; 최선화, 2005).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사회를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곳으로 묘사한다. 여성주의이론들은 남성과 여성이 그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성 정체감과 역할 규범을 학습하는 사회화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위와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성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남녀가 사회제도 속에서 각기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성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특권을 갖는 반면 여성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주로 아내, 어머니, 가사노동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체계에 구속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기 인생의 주체가 아닌 타자 혹은 주변화된 객체가 되며, 일상의 상호

작용에서 사회적 성이 요구하는 행동을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속하게 된다. 특히 남성중심적 사회는 여성이 지닌 협동, 돌봄, 평화주의와 비폭력 등의 여성적 덕목이 상생(相生)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가치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성적 차이를 영속화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사회가 성에 따른 불평등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여성주의이론들에서는 사회의 성적 불평등이 가부장제도와 성차별적인 노동분업이 고착화됨으로써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물질적 자원, 사회적 지위, 자기실현을 위한 권력과 기회를 적게 가지게 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사회적 성 불평등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들 이론에서는 성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 잡고 변혁시키기 위해 법률, 노동, 가족, 교육 등의 사회제도에 도전하여 이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사회 내에 성적 억압이 존재한다고 본다.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여성이 지배자인 남성에 의해 도구로 전락하고 독립적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통제받고, 이용당하고, 복종하고, 억압당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왜곡된 사회제도인 가부장제를 만들어내고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그 제도에 일시적으로 저항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부장제도에 순응하고 이를 지지하게 됨으로써 성적 억압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신체학대, 성폭력과 성희롱은 물론 미적 기준, 일부일처제, 순결, 무임금 가사노동, 저임금 노동 등과 같은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여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회 불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조인 것이다. 이에 급진적 여권주의이론에서는 계급, 인종, 민족, 연령 등의 기본적 사회구조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억압구조를 성적 억압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라고 보고, 이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성 억압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사회 내에 여성에 대한 억압을 조장하는 지배구조가 존재한다고 본다.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사회내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계급, 인종주의, 민족주의, 사회적 성, 이성애주의와 같은 구조들이 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용하고 종속시키고 억압하여 직접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때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사회현상은 좋고 우월한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쁘고 열등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자신들의 억압적 행위들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억압적 지배구조들이 영속화되게 된다. 사회내의 구조적 억압 장치들은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남성에게는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배분하는 반면 여성들에게는 더 적은 자원과 권력을 배분함으로써, 남성에 의한 여성의 도구화와 억압을 제도화시키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사회의 지배적 억압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갖는 자율적 존재로 본다. 다시 말해 인간 특히 여성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 행위하며, 자신에게 맞는 생활유형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춘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존재로 본다.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 존재로 규정한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독특하면서도 공통적인 독립적 자아를 갖고 있으며, 이 자아는 본질적으로 합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러므로 사회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 타인이나 사회제도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 등을 보장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자기실현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본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는 아니며, 사회구조의 불합리성에 저항하고 이를 극복하여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2) 기본 가정

여성주의이론에서 여성을 포함한 인간 모두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며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가 남성에게 더 높은 지위와 권력, 자원을 배분하고 여성을 타자화 또는 주변화된 객체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의 지배구조를 창출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적 성에 따른 불평등, 통제, 억압, 착취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자율적 삶의 영위와 자기실현에 방해를 받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에 근거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념과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정치적 실천을 병행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에 대한 관념을 극복하고 성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 즉, 양성성(兩性性)이 모두 보장받는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여성주의이론의 기본가정을 살펴보면, <표 28-1>과 같다(Ritzer, 2016; 공미혜 외, 2010; 최선화, 2005, 최옥채 외, 2020).

< 표 28-1 > 여성주의이론의 기본가정

- 인간의 본성은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모두 동등하다.
- 여성도 동등한 인간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갖는다.
- 생물학적 특성은 성 평등적인 사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을 통하여 재능이 있다면 누구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성의 무능력은 법률과 사회제도가 특정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 누구도 성에 따라 특정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요받아서 안 된다
-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성 차이는 어린 시절부터 진행되는 양육과 사회화 과정의 결과이다.
-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과 남성의 범주는 극복되어야 한다.
- 성차별은 빈곤, 인종, 민족, 노동 등의 다른 사회적 차별과 긴밀한 연결구조를 갖는다.
-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모두에 여성 억압과 여성문제의 원인이 있다.
-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재생산하고 여성은 남성이 정해놓은 계급사회에서 정체성을 부여받으므로, 가부장제의 이념에 대항해야 한다.
- 여성의 무보수 노동과 이에 따른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에서 열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 여성이라 하여도 모두 같지는 않으며, 그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관념을 극복하고 양성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성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념과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정치적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주요개념

여성주의이론은 여성중심적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같은 사회현상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다음에서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관점을 살펴본 후에, 여성주의이론의 기반이 되는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유래된 용어로 원래 여성적인 특성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실천적 이념을 의미’ 하는 여성주의(feminism) 이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itzer, 2016; 공미혜 외, 2010; 유현옥, 정민승, 2018; 최선화, 2005).

1)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성(sex) 혹은 성성(sexuality)은 생물의 성별과 성적 행위를 일컫는 생물학적 성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신체적이며 유전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용어이다.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sex differences)는 당연한 것이며, 현존하는 성 관행은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성별 분업이나 행동양식, 양성간의 정서적 차이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생물학적 특성(Wison, 1978)이라고 본다. 이처럼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급격한 성역할의 변화는 생물학적 특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인다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적 관행을 정당화시킨다.

한편 사회적 성이라 불리는 젠더(gender)는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을 일컫는 용어이다. 젠더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는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사회적 기회구조나 삶을 설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구조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젠더의 차이는 중립적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문화에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성역할 규범과 성적 정체감을 부과하고, 성에 따라 행동 등을 제약한다. 특히 여성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노동자의 재생산에 일차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의 성역할 규범과 분담체계 속에서 차별과 불평 등을 경험하게 된다.

젠더 관점은 위의 사회생물학적 관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의 차이(gender differences)는 사회적 차별과 지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여성은 권력, 특권, 재산, 자원 등에 접근함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성별에 따른 차등적 분업을 강요받게 되고, 자원 등의 분배과정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젠더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즉, 젠더가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상호작용, 기회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정책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사전에 고려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liberal feminism)는 16-17세기의 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18-19세기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세기 남녀 간의 평등권 운동을 주도한 초기의 온건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역할이나 자질을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된 가족 내의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과 돌봄, 비폭력, 평화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독특한 자질이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를 도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온건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가부장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어 여성이 사적 삶의 영역에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사회의 성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문제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개량적 관점에서는 합리적 존재인 여성과 남성 모두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율성을 행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의 성적 불평등은 생물학적 성 차이에 근거한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무능력이 오직 법과 제도가 특정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여성이 받는 부당한 대우가 평등성이나 공정성을 표방하는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사회는 교육, 노동, 정치, 법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줌으로써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양성간의 차이와 차별은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인 Fridan(1963)은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도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여성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아내, 어머니, 가사노동자로서 표현적 역할로 담당하도록 하는 이분법적 역할

분담체계는 성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하므로, 남녀 모두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 조건이라고 보고,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에서는 여성문제를 여성을 불평등하게 처우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회의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 찾고, 여성에게 불리한 법률과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여 여성의 지위를 상당 부분 향상시켰으며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도 얻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특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남성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Marxist feminism)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계급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사회적 억압의 부차적 형태로 보고, 여성은 성차별주의에 의해서나 남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여성 억압이 자본주의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의 산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가 강조하는 남녀간의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은 지배계급의 이윤추구가 개인의 삶의 결정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산업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자, 그리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의 재생산자로서의 역할분담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성별 노동분업체계도 공고해지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가사노동이 남성의 생산노동만큼 중요성을 인정받으면, 남녀 간의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사회의 경제적 착취구조와 계급형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 억압을 해결하는 방안은 노동자의 혁명과 사유재산의 폐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계급혁명에 의한 생산구조의 사회화, 여성을 저임금노동력으로 이용하는 성별 분업구조 폐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를 통한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억압을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성별 노동분업의 결과인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는 여성을 독립적 계급범주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 고유의 인식론적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성문제 또는 성적 억압의 문제를 경제적 계급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다양한 여성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4) 급진주의 여성주의

급진주의 여성주의(radical feminism)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통제에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여성억압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억압의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들은 모성역할과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의 성과 재생산 통제 그리고 가부장제에 관심을 두었다.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이 남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여성의 재생산기능을 과학으로 대체함으로써 성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모든 권력관계의 기본이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차이를 과장하여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고 강화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부장제 하에서 형성되고 구성된 성역할, 성적 지위와 기질 등을 제거함으로써 성역할이 통합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급진주의 여성주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는 어귀에서 보듯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여성억압이 다른 사회적 억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급진주의 여성주의는 여성억압의 원인을 임신과 출산과 같은 생물학적 조건으로 규정하여 생물학적 환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여성억압을 극복하는 실천방법으로 극단적인 분리주의 즉, 정치적 레즈비어니즘(political lesbianism)을 선택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5) 사회주의 여성주의

사회주의의 여성주의(socialist feminism)는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와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가 계급이 여성억압의 근

원이라고 본 것과 달리 성별과 계급이 동시에 여성억압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가부장제의 재생산양식을 중심으로 여성억압의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Mitchell(1971)은 여성의 지위가 단순히 자본과의 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생산, 출산, 자녀의 사회화 그리고 성관계의 네가지 측면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녀는 성관계에서 여성들이 자유를 획득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기능과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가지 측면에서는 진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녀는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재생산하고 여성은 남성이 정해놓은 계급사회에서 정체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부장제의 이념에 대항하여 가부장제를 없애는 문화적 혁명이 이루어져야만 여성억압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가정에서 무보수 노동을 하는 여성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한다고 보고,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과 이에 따른 경제적 무능력이 여성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Mitchell, 1971).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위는 남편의 자원에 맞춰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여성은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의존적이고 부수적인 객체가 된다고 본다. 특히 Jaggar(1983)은 여성은 성적 존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소외되어 있으며, 지배적 남성문화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간주되고 성폭력과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자녀양육의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얻지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억압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여성억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노동분업 체계가 해체되어야 하므로, 남성과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공평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계급구조와 성별구조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모두가 해체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둘다의 해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여성이 인종, 문화, 계급, 개인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여성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6)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

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특성의 차이는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남근기에 여자아이들이 갖게 되는 남근선망(pennis envy)가 여성의 성격적 특징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즉, 남근이 없다는 사실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더욱 수동적이고, 허영심과 질투심 그리고 자아도취성이 강한 성격을 갖게 만들며, 남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본다.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psychoanalytic feminism)에서는 정신분석이론이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보는 있는 여성차별적 관점을 비판하면서도, 정신분석이론을 재해석하여 여성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에서는 여성 억압이 심리구조 내에 근원이 있으며, 유아기와 아동기에 형성된 관계의 지속적 반복을 통하여 강화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생산하고 강화하는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을 찾으려고 했다.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는 남성지배구조의 생성과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구조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 사회가 남성에게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남성의 남근이 중요성을 가진 것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성의 정체체성이나 정신병리가 남근부재(男根不在)라는 생물학적 결핍이 아니라 가부장제하에서 자녀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이 전담함으로써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의 신경증을 지속적인 사회적 종속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시도로 인식한다.

Chodorow(1999)는 유아기의 성에 따른 차별적 경험이 남아와 여아 사이에 차별적 발달과정을 거치게 만든다고 보았다. 즉 남아는 어머니와 분리되어 아버지의 사회적 권력과 동일시하는 반면 여아는 어머니와 공생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남아의 자율성과 분리를 강조하는 관계역동이 남아를 더욱 강하고 사적 영역의 관계에 덜 예속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반면 사적 영역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아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준비가 부족한 유동적 성격구조를 갖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성의 성격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원적 양육(dual parenting)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아동이 부모를 관계 맺고 있는 개인(individuals-in-relation)으로 인식하게 하고, 남아와 여아 모두가 자신을 자가지향적이면서 동시에 타가지향적 존재로 경험하게 하고, 남녀 모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길러주는 이원적 양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원적 양육이 현실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육아휴직제도 실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 양성의 돌봄제공자에 의한 질 높은 육아, 그리고 양

성의 교사에 의한 유아 및 초등교육 실시 등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는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에서 어떻게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지, 그 과정에서 가부장제도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과정으로서 성장과정을 설명하므로 사회문화적 조건이나 상황을 경시하고, 여성 억압의 주된 원인을 사회적이기 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이원적 양육이 과연 긍정적 효과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post-modern feminism)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와 여성주의를 결합한 제3세대 여성주의로서, 프랑스 여성주의로도 불린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주의가 남성중심적 담론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여, 주변부에 위치한 타자인 여성의 입장을 재해석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타자성이 억압과 연결되어 있지만 가부장제 중심의 지배문화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상황을 다양성과 차이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여성은 남성과 다르므로 그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에서는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비실재성을 주장하고, 남성중심 지배구조를 포함한 모든 억압적 지배구조로부터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와 남성까지 포함하는 피억압적 지위에 놓인 인간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을

생식기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여성은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선진국 여성과 후진국 여성,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 이성애자 여성과 성소수자 여성의 삶, 경험, 이해관계, 요구 등이 매우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 집단으로 묶는 것은 소수자집단 여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는 억압당해 온 계층으로서의 여성과 여성성이 지니는 잠재 가능성을 밝혀내고,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와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여성적인 것을 상대적 우위에 두고 있어 성별 이분법적 범주를 온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다양성과 비중심성, 다원성을 중시하는 가치는 바람직하지만, 여성억압의 해결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실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는 ‘학자들의 여성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난해하고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9) 생태여성주의

생태여성주의(eco feminism)는 생태학(ecology)과 생태주의(ecotopia) 그리고 여성주의가 결합되어 197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여성주의 패러다임이다.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여성과 자연을 문화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던 모더니즘적 사고에 저항한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자연의 억압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을 이해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즉, 여성억압과 자연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패러다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되고 착취된 것처럼 자연도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원리에 의해 착취당하고 파괴되어 왔다고 보고, 문명담론에 의해 착취당하고 파괴된 자연과 여성의 삶을 분석하여 대안적인 삶의 유형을 제안하려 하였다.

자연 생태여성주의에서는 돌봄, 양육 등의 여성과 연관된 속성이 생물학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보고, 여성과 자연이 남성과 문명보다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되며, 여성의 속성이 남성보다 우월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영적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는 어머니의 대지(mother earth)와 출산하는 여성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여성과 자연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구성주의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성차별주의와 자연주의를 동시에 종식시키기 위해 남성-여성, 문명-자연과 같은 잘못된 이원론적 준거틀을 제거하고 여성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자연과 여성의 억압을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문제로서 파악하며, 탈식민주의 이론과의 연계 속에서 제 3세계의 여성문제와 환경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세부 이론을 포괄하는 생태여성주의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이 모두 존중받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의 해체, 권력 분산과 위계질서의 해체, 직접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태페미니즘은 여성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지배-종속 관계를 넘어 모든 인간과 생명체와의 공생관계를 위한 준거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세부 이론별로는 여성과 자연의 능력을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답습하고 있으며, 서구 여성 중심의 이상주의를 제시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3.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

여성주의이론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회변동을 추구하는 실천방법이자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이론은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고, 이를 영속화시키는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현재 사회구조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여성주의이론은 여성을 대상 또는 객체로 보는 사회와 집단에게 저항하여, 불평등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성 평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특정 시대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다.

여성주의이론은 특정 시대의 성 차별과 억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주의운동의 이념을 지지한다. 첫 번째 여성주의운동은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던 신분사회로부터 자유주의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1세대 여성주의운동에서는 정치적 참여, 교육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교육, 노동, 정치, 법 등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으로 확대되었다.

사회변화를 위한 2세대 여성주의운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

두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인 성적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여성의 법적 권리 향상뿐 아니라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자율성, 낙태와 임신과 육아 등의 재생산 권리,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 및 강간 등으로부터의 보호, 육아휴직과 동등 임금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의 노동권 신장, 그리고 여성이 마주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문화적으로 덧씌워진 열등한 이미지에 대한 저항 등을 통해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사회변화를 위한 3세대 여성주의운동은 여성과 남성과 같은 이분법적인 담론을 거부하고, 성차별을 인종, 민족, 계급, 국적, 성적 지향 등의 모든 사회적 차별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사회적 차별과 성차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심지어는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규정을 지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성주의이론은 추구하는 가치와 실천방법이 다양하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성 때문에 차별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자유, 평등, 사회정의의 가치를 선호하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선호하는 가치에 도전하여 양성성이 존중받은 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이론이다(Taylor, 2007); 최옥채 외, 2020).

4.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의 적용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학습되고 부여된 사회적 성(gender)에 따른 차별이 사회문제를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지은구 외, 2015). 다시 말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의 인간화를 방해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여성억압에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이 된다고 본다(박용순 외, 2019).

이러한 사회문제로서의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주의이론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유주의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성적 불평등이 남성중심의 사회적 관습과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여성의 무능력이 오직 법과 제도가 특정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여성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아내, 어머니, 가사노동자로서 표현적 역할로 담당하도록 하는 이분법적 역할 분담체계가 성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사회적 억압의 부차적 형태로 보고, 여성에 대한 억압이 사회의 경제적 착취구조와 계급형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여성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성별 분업구조,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 부과 등과 같이 여성억압의 문제를 경제적 계급의 문제로 이해한다. 급진주의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여성억압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억압의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모성역할과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통제 그리고 가부장제도의 여성 지배 등이 여성억압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사회주의의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가부장제의 재생산양식을 중심으로 여성억압의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재생산하고 여성은 남성이 정해놓은 계급사회에서 정체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여성억압이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과 이에 따른 경제적 무능력이 여성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갖게 되며, 여성은 성적 존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소외되고 객체화되며, 지배적 남성문화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간주되고 성폭력과 성희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에서는 유아기의 성에 따른 차별적 경험이 남아와 여아 사이에 차별적 발달과정을 거치게 만든다고 보고, 여성 억압이 심리구조 내에 근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생물학적 결핍이 아니라 가부장제하에서 자녀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이 전담함으로써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비실재성을 주장하고, 남성중심 지배구조를 포함한 모든 억압적 지배구조가 여성문제와 피억압적 지위에 놓인 소수자집단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생태여성주의이론에서는 여성과 자연을 문화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던 모더니즘적 사고에 여성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2)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대한 함의

복지주의 여성주의(welfare feminism)에서는 자본주의 체계를 인정하고 여성의 재생산 역할을 강조하여, 여성의 출산과 양육과 같은 재생산 역할을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복지국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가부장제도의 틀에 가두고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여 여성차별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여성주의이론가들은 복지주의 여성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모형은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는 ‘몰젠더성(gender-blindness)’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성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남성 가장중심의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는 공적 가부장제도 혹은 국가 가부장제도로써 여성의 종속을 유지 강화하는 체계이며, 심지어는 사회복지정책이 여성억압의 기제로 작동한다고 비판한다(공미혜 외, 2010). 이에 여성주의이론에서는 전통적인 부양자모델에 근거한 가부장적 가족지원정책을 비판하면서,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영역에서 성 통합을 주장하고, 탈가족화 또는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인지적 사회복지정책을 모색해왔다.

성인지적 사회복지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회를 갖는다고 보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 및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지적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 속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이러한 성에 따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평등과 성주류화를 핵심으로 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의 초기단계는 남녀평등을 위한 성 편견 제거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집중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정책을 지양하고 양성간의 평등한 권력관계를 중시하여, 사회제도에 의해 여성이 억압을 받는다고

보고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지위에 관심을 두고, 남녀 모두의 역할변화를 통해서 성불평등을 완화하고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된다. 최근 들어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전제하고, 인간 발전이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등 인간 상호간의 돌봄을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적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성주의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실천에서는 개인의 문제와 사회·정치적 요인들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여성 개인의 문제가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애주의(heterosexism), 장애인차별, 계급차별 등이 개인의 생활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해 개인은 차별과 상처를 입게 된다고 본다(Coady and Lehmann, 2016). 그러므로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내담자의 문제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내담자를 둘러싼 억압적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에 대처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①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②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③ 내담자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성정체감을 이해하고, ④ 고정된 성역할 신념을 개선하고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⑤ 억압적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고, ⑥ 자기 돌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내담자를 돕는다(Corey, 2016).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

1. 귀하의 성에 대한 인식을 성찰해보시오.
2.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차별현상에 대해 탐색해보시오.
3.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여성주의이론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시오.
4. 우리 사회의 성역할 사회화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에 따른 차별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5. 여성의 재생산 기능 즉, 임신, 출산, 양육 기능에 대한 귀하의 관점을 성찰해보시오,
6.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김도영 감독)나 책(조남주 지음)을 보거나 읽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사회 여성의 삶을 탐구해보시오.
7. 여성 노동과 여성 빈곤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8. 성폭력과 학대, 성매매, 성 상품화 등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 차별과 억압문제에 대해 탐색해 보시오,

9.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젠더 퀴어(gender queer;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 그 외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는 상태 또는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 등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탐색해보시오,
10.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상인 안티페미니즘(antifeminism)에 대해 탐색해 보시오,